

사회

죽음부른 다문화가정 고부 갈등

베트남 아내-어머니 잦은 다툼에 괴로워한 남편 자살

추석(30일)을 앞두고 베트남 출신의 아내와 노모간 고부 갈등을 괴로워하던 40대 남성이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

광주남부경찰에 따르면 지난 23일 오후 2시36분께 광주시 남구 지식동 한 논길에 주차된 화물차량 안에서 A(48)씨가 숨져 있는 것을 형(54)이 발견해 경찰에 신고했다.

A씨가 발견된 차량 내에서는 노트에 적힌 유서 형식의 장문 메모와 타다남은 번개탄 2장, 수주 3병이 발견됐다. 메모에는 "어머니에게 미안하다. 아내는 베트남으로 돌려 보내달라"라는 내용이 적혀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가족들은 A씨가 지난 22일 집을 나간 뒤 소식이 없자 119에 휴대전화 위치추적을 요청해 소재를 파악했다.

A씨는 3년 전 늦은 나이에 베트남 출신의 20대 아내와 결혼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후 화물차 택배 배달을 하면서 형 대신 노모(70)를 모시고 함께 살았으며, 두 살 된 아들이지만 것으로 전해졌다.

하지만 3년여동안 베트남과 한국의 문화·언어·정서적 갈등으로 인해 아내와 노모 사이에 다툼이 잦아지기도 했다. 당시 광주지법은 시어머니를

살해하기 위해 밤에 극약을 넣어 존속 살해 미수로 기소된 베트남 출신 B(24)씨에 대해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하고, 양로원 봉사 320시간과 40시간의 심리치료 및 사회 적응 수감, 3년간 보호관찰을 명령했다.

광주시 서구다문화가족지원센터 관계자는 "최근 이주여성들의 이혼율이 높아지고 있고, 시댁 식구와 살고 있는 여성일수록 갈등이 깊어지는 경향이 강하다"며 "문화적으로 다른 환경에서 자란 사람들이 서로의 방식을 이해하지 않으려는 것이 가장 큰 원인"이라고 말했다. /김경민기자 kki@

시작했다고 경찰은 전했다.

경찰 조사 결과 시간이 지날수록 노모와 아내의 갈등의 골은 더욱 깊어지고, 심하게 싸우는 경우도 자주 발생하면서 A씨가 둘 사이에서 괴로워했던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은 고부갈등에 스트레스를 받아온 A씨가 스스로 목숨을 끊은 것으로 보고 정확한 사망 경위를 조사중이다.

앞서 지난 5월에는 고부간 갈등을 겪다가 시어머니의 밤에 극약을 넣은 혐의로 기소된 베트남 출신 20대 며느리에 대해 형원이 집행유예를 선고하기도 했다. 당시 광주지법은 시어머니를

살해하기 위해 밤에 극약을 넣어 존속 살해 미수로 기소된 베트남 출신 B(24)씨에 대해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하고, 양로원 봉사 320시간과 40시간의 심리치료 및 사회 적응 수감, 3년간 보호관찰을 명령했다.

광주시 서구다문화가족지원센터 관계자는 "최근 이주여성들의 이혼율이 높아지고 있고, 시댁 식구와 살고 있는 여성일수록 갈등이 깊어지는 경향이 강하다"며 "문화적으로 다른 환경에서 자란 사람들이 서로의 방식을 이해하지 않으려는 것이 가장 큰 원인"이라고 말했다. /김경민기자 kki@

총인비리 연루자 모두 징역 구형

광주시청 공무원·교수·업체 간부 등 28명

광주지검 특수부(부장검사 김석우)는 24일 광주지법 형사10단독 최철민 판사 심리로 진행된 총인저감시설 입찰비리 사건 결심공판에서 광주시청 서기관 반모(58)씨에 대해 징역 2년에 벌금 3000만원, 추징금 2000만원을 구형하는 등 공무원 8명에 대해 각각 징역 1년~징역 3년, 벌금 및 추징금을 구형했다.

또 검찰은 총인저감시설 선정 평가 심사위원으로 참여했던 전남대 교수 박모(52)씨 등 교수 5명에 대해서도 각각 징역 1년~징역 2년, 벌금 및 추징금을 구형했다.

심사위원인 공무원과 대학교수에

뇌물을 전달한 혐의로 기소된 대림산업 상무 윤모(52)씨는 징역 1년에 추징금 1억2500만원을 구형받는 등 건설업체 직원 15명도 징역 8월~징역 1년, 추징금 등이 구형됐다.

공무원들과 대학교수들은 지난해 2월부터 8월까지 광주시 총인저감시설 턴키공사 수주업체 선정을 위한 설계평가에 참여한 뒤 입찰 참가 업체로부터 500만~4000만원까지 받아 행한 혐의로 기소된 바 있다.

이들에 대한 선고공판은 10월29일 오후 2시에 열릴 예정이다. /윤현석기자 chadol@kwangju.co.kr

나원침 (8655) 김종두



장기투자 동료 살해

50대 조선족 영장

강진경찰은 24일 마다포 끝에 동료 54)씨에 대해 살인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에 따르면 전씨는 지난 23일 밤 11시25분께 강진군 강진읍 한 여인숙에서 조선족 일용직근로자 동료 A(55)씨를 흉기로 찔러 살해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조사 결과 전씨는 장기를 함께 두던 A씨가 "멍청하다"며 자신을 놀리고, 폭행까지하자 격분해 A씨가 잠든 틈에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중부취재본부=남철희기자 chou@

광주 진월동 '이마트 에브리데이' 우회 입점 시도 용역업체 동원 물품 반입 충돌

광주시 남구에 기업형슈퍼마켓(SSM)인 '이마트 에브리데이'가 우회 입점을 준비하고 있어 상인단체와 갈등을 빚고 있는 가운데 24일 마트 측이 용역업체 직원들을 투입해 물품 반입을 시도하다가 충돌을 빚었다.

'중소상인 살리기 광주네트워크' 등에 따르면 이날 오후 2시께 광주시 남구 진월동 옛 해태마트 부지 앞에서 용역업체 직원 30여명이 병참고, 상품 진열대 등을 마트 안으로 반입하려 했다.

이 과정에서 통합진보당 광주시당과 남구의회 의원, 중소상인네트워

크 등 회원 50여 명이 차량을 이용해 물품 반입을 저지하면서 용역업체 직원들과 고성어 오가는 마찰을 빚었다.

중소상인네트워크 회원들은 "불법 건축 설계로 허가가 철회돼 대형마트 입점이 중단된 상황인데도, 이마트가 '신진유통'이라는 이름을 내세워 입점을 시도하고 있다"며 "이날 반입된 물건에는 '이마트 에브리데이'라는 이름이 쓰여 있었다"고 지적했다.

이후 경찰이 출동했고 오후 5시께 최영호 광주 남구청장이 나서 "이마트 에브리데이가 아닌 신진유통이라

는 이름으로 등록서류가 들어왔다"며 "이마트 에브리데이가 관계자와 상인, 남구청이 함께 만나 이야기할 수 있는 자리를 만들겠다"고 말했다.

광주시도 이날 이마트 에브리데이에 측에 우회 입점에 대한 정확한 입장 표명을 요구하는 공문을 발송했다.

이에 대해 해당 사업주는 "이마트 에브리데이는 법적으로 SSM과 달라 유통산업발전법을 적용받지 않는다"며 "해당 사업주 또한 이마트측과 계약이 되지 않아 사업조정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고 밝혔다. /김경민기자 kki@kwangju.co.kr



광주시 남구 진월동에 기업형슈퍼마켓(SSM)인 '이마트 에브리데이'가 입점을 준비하면서 상인단체와 갈등을 빚고 있는 가운데 24일 마트 측이 물품 반입을 시도하다가 상인들과 충돌했다. /최현배기자 choi@kwangju.co.kr

"여수서 장기 적출 시신" 피소문 경찰, 유언비어 유포자 색출 나서

여수에서 시신이 훼손된 살인 사건이 발생했다는 유언비어가 나돌고 있어 경찰이 유포자를 찾아 나섰다.

여수경찰은 24일 인터넷과 트위터, 스마트폰 어플리케이션 등을 통해 여수에서 엽기적인 살인 사건이 발생했다는 유언비어가 확산되고 있어 유포자를 추적해 처벌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최근 인터넷 등에서는 '여수시청 뒷편 공원에서 장기가 적출된 시신이 발견됐다'는 피소문이 퍼지고 있으며 '장기를 노린 살인사건'이라는 유언비어가 나돌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전혀 근거 없는 유언비어를 날조하고 유포해 지역 이미지를 실추시키고 있다"며 "더 이상 유언비어가 확대되지 않도록 유포자를 검거해 사법처리할 방침이다"고 밝혔다. /동부취재본부=김철희기자 chkim@

20대 2인조 절도범 검거

광주북부경찰은 24일 상습적으로 금품을 훔친 혐의(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상습절도)로 임모(24)씨를 구속하고 같은 혐의의 고모(23)씨는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이들은 지난 5월 12일 새벽 2시35분께 광주시 북구 신안동 한 도로에 세워진 택시에서 현금 5만8000원을 훔치는 등 4차례에 걸쳐 46만원 상당의 금품을 훔친 혐의다.

임씨는 또 5월14일 밤 9시께 광주시 북구 우산동 한 술집에서 장모(여·40)씨의 가방을 훔치는 등 5월부터 최근까지 33차례에 걸쳐 2000만원 상당의 금품을 훔쳤다는 것이 경찰의 설명이다. /김대성기자 bigkim@

진도·장성 경찰관 수억 횡령

유류비 2억 골짜기... 1억으로 주식투자

경찰청이 진도경찰서 간부와 장성경찰서 직원이 여대의 공금을 횡령하거나 유용한 정황을 포착해 감사원 운영에 필요한 유류를 공급받는 모 주유소를 통해 2억2000만원 상당의 공금을 횡령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청은 비위행위가 이뤄진 당시의 전 경찰서장에 대해서도 감사를 벌인 것으로 알려졌다.

김 경위는 진도 지역에 있는 경찰수련원 관리업무를 담당하면서 수련원 운영에 필요한 유류를 공급받는 모 주유소를 통해 2억2000만원 상당의 공금을 횡령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청은 비위행위가 이뤄진 당시의 전 경찰서장에 대해서도 감사를 벌인 것으로 알려졌다.

또 장성경찰서 유모(41) 경사는 직원의 건강보험료 1억원 가량을 주식에 투자했다가 납부하는 등 공금을 유용한 정황이 드러나 조사를 받고 있다.

전남경찰청은 최근 김 경위와 유 경사를 대기발령 조치했으며 감사 결과가 나오는데로 징계 수위를 결정할 방침이다. /윤현석기자 chadol@kwangju.co.kr

인터넷에서 만나는 **광주일보**
www.kwangju.co.kr

축제 규정은 여대생 엉덩이 더듬어

○대학 입학 후 첫 축제에 들른 10대가 규정은 여학생을 성추행 했다가 경찰서행.

○24일 광주북부경찰에 따르면 광주 모대학교 1학년 홍모(19)군이 지난 22일 밤 10시20분께 대학 캠퍼스에서 축제 공연을 관람하던 여대생 A(18)양의 치마에 손을 넣어 엉덩이를 더듬었다는 것.

○학생들이 불합류 경찰에 넘겨진 홍군은 "술을 마시고 이성을 잃어 충동적으로 벌인 일"이라며 선처를 호소. /김대성기자 bigkim@kwangju.co.kr

절반만 결제해도 여행가능

목돈없이 떠나는~ 내맘대로 여행. 2012상반기 베스트 히트상품

가슴 뛰는 삶의 여정에 동참하기 위해 후불제여행을 경험 해보자.

해외여행 1000만명 시대
목돈이 없어 여행을 망설이신다면
여기 후불제투어 여행적금을 적극 이용하세요.
가족단위, 산악회, 단체, 직장, 성지순례, 골프, 신혼
목돈없이 계획대로 여행갈수 있습니다.

■ 후불제투어 특징

- ① 후불제여행은 매일 일정 금액을 6개월 납입후 여행을 다녀온 후 여행잔금을 매일 일정금액 나머지 금액만큼 납부하는 획기적인 후불제여행 시스템입니다.
- ② 하나투어·모두투어 원하는 여행상품을 마음대로!
- ③ 양도양수가 가능합니다(1인1구좌에 한함)
- ④ 여행금액을 다 지불하고 가는 여행이 아니므로 최상의 고객만족을 실현시켜드립니다.
- ⑤ 만기시 100% 환급가능합니다.

책임감 있는 진행으로 인한 스트레스 NO!!

회원가입 월 회비 적립금 최대 360만원까지	월 회비 금액 40,000원 60,000원 120,000원	회비선택하신후 6개월 적립후 여행가능	상품 선택후 고객센터예약	적립금액+ 지원금액 목돈 없이 여행	여행후 잔금적립후 계약만료
--------------------------------	---	----------------------------	------------------	---------------------------	----------------------

신뢰의 1위기업 후불제여행사, 후불제 여행민의 신뢰와 차별화된 서비스를 직접 경험 해보세요.

(주) 후불제투어 www.hubuljetour.co.kr
회원가입 및 상담문의 1577-5978

지사/영업직모집
■ 퇴직자, 주부사원, 알바, 재택근무
■ 지사모집 : 소자본 무경험, 여행사 운영가능합니다. (법인설립비용없음)

아이엘리시아

특허청 서비스표등록 제41-0187289호

150여가지의 즉석메뉴(샐러드, 양식, 일식, 중식, 한식)를 온 가족이 마음껏 취향에 따라 드실수 있는 즉석 프리미엄뷔페!!

가격안내 (이용시간: 11:30-22:00)

- 평일 (중학생이상) 25,000원
- 토·일·공휴일 (중학생이상) 29,000원

각종 모임 및 행사예약 (150석, 92석, 52석, 32석, 24석, 12석)

- 돌잔치, 피로연, 회갑연, 칠순연, 세미나 | • 출장뷔페, 도시락

예약문의 062)671-1199 | 광주중합버스터미널 2층

24시 유·스퀘어사우나

각종 편의시설 수면실(침대) · 인터넷 · 안마기 · 세션 · 세화

유·스퀘어 2층 아이엘리시아 옆 문의전화 062) 352-4455 | 터미널 주차장 2시간 무료